

##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멸시키는 독약 (런재—3)

### 3. 중공은 어떻게 전통문화를 전면 부정하였는가 (3)중국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변이(變異)시킴

오천년 역사를 지닌 중국의 전통문화는 일찍이 우리 민족의 혈액속에서 녹아 흐르고 있었기에 철저히 절단하고 공산당의 의식형태영역으로 전면적인 통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중국 전통문화 중의 선악(善惡)에 대한 이야기, 우수한 시편들은 모두 가정내에서 혹은 각종 민간 예술의 형식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여 유전(流傳)되어 왔다. 지식인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철저히 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은 천방백계로 ‘무신론’의 관점을 중국 전통 문화 중에 변태적으로 주입시켰다.

1949 년 후에 출판된 당시(唐詩) 해석을 보면 민족문화 중의 정화(精華)를 모두 ‘거짓, 사악, 투쟁’ 등의 이념으로 해석하였다.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 ‘울분의 발산’, ‘이념’, ‘소극’, ‘고민’, ‘미신’, ‘낡은 사회’ 등의 단어는 없는 곳 없다. 특히 많은 시인들은 부처를 수련하거나 도를 닦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우주와 생명에 대한 총결과 수련 후의 체험을 하나 하나 시로 정제한 것이다. 이런 문화의 정수는 도리어 ‘낭만주의’,

‘환상’, ‘봉건’으로 해석하였다. 경전(經典)의 명편들은 일률적으로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인용하여 본래 뜻을 바꾸어 놓았다.

전통 문화는 이 50 여년 동안 파괴되고 소멸되었다. 책을 불태우고 경전을 훼멸하고 책을 금지하고 글자를 간자체(簡體)로 개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의 진실한 역사와 문화를 영원히 잊게 만들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자를 간자체로 고친 것은 전통문화와의 연계를 철저히 끊어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옛날 책을 알아볼 수 없게 한 것이다.

학생들의 교과서에서의 고대중국어 해석에는 전편에 ‘계급투쟁’, ‘착취’, ‘낡은 사회’ 등 중공의 술어가 관통되지 않은 곳이 없다. 역사의 배경은 ‘암담한 현실’이며 인민은 꼭 ‘안심하고 살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0 년동안 중공의 이른바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적 계승’이다. 심지어 1949 년 이전에 학식이 있었던 지식인들도 몇십년 동안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경전에 대한 해석과 ‘4 서 5 경’의 해석에 일률적으로 중공 당문화의 꼬리표를 붙여 ‘유물변증법’이라는 야만스런 이름으로 젊은 세대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다.

### 대만 대남현 의회에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건책하는 의안을 통과

2007 년 6 월 22 일, 대만 대남현 의회에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만행을 건책한 립시제안>을 통과했다. 중공이 파룬궁학

원의 생체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고 시체를 불살라 흔적을 없애버린 만행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만 23 개 현시중 대남현은 19 번째로 의안을 통과하여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건책했다.

### 중공의 거짓 선전

이 글쭉지 내용대로 읽으면 당신의 의약비를 면제해주겠소.



▲<7.20>부터 파룬궁을 박해한 첫달에 중공매체에서는 매일 황금시간에 계속하여 전국인민들을 세뇌했다.

# 하북악경 하설건이 법륜공수련생 강간후 음경암에 걸리다

【명혜망소식】 하북성탁주시 동성방진 파출소 악경 하설건(何雪健)은 2005년 11월 파출소 내에서 이른바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자신의 어머니와 년세가 비슷한 두명의 법륜공 여 수련생 류계지와 한옥지를 강간하였다.

이 소식이 드러난후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세계각지의 중국대사관, 영사관 문앞에는 항의하러온 사람들로 모여있었고 악경 하설건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강렬한 국제사회의 압력하에서 중국 당국은 부득불 하설건을 8년 도형에 처하였다.

게다가 하설건은 현재 음경암에 걸렸다. 그의 음경과 고환은 전부 적출되었다. 수술후 하설건은 세차례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미수로 그쳤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현지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악경 하설건이 여 수련생을 강간하니 8년 판결이 내려지고 악보가 재차 내려져 음경암에 걸렸노라, 어느부위가 나쁘면 그 것이 먼저 썩어빠지니 음경고환이 모두 적출되어 자살도 3 차례고 사는 것이 죽음보다 못하노라. 업보는 아직도 갚아야 하고 선악에는 끝내 보응이 있으니 밀지 못하겠으면 눈 뜨고 보아라

바로 대법을 박해한 그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니라.

중공과 강택민이 법륜공을 박해한 이래, 몇백명의公安국장, 몇천명의 “610 판공실” 관원 그리고 몇만명의 사악한 경찰들이 악보를 받았다. 그리고 더욱 많은 법륜공 진상을 알지 못하고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도록 고발한 자들이 악보를 받은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악을 행한 자는 기필코 그의 증오스런 면과 가려난 면이 있는데 그 뒤의 막후의 검은 지휘자는 바로 중국 공산당 당국이다.

중국대륙의 경찰들이 선택하고 가야할 길은 반드시 중공의 사악한 부채에서 리탈하는 길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가려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화: 당의 말은 듣고 당을 따라가면 지옥으로 갈수밖에

## 순식간에 필리핀에서 멕시코로 온 한 보초병

력사상 가장 유명한 먼거리전송(遥距传送) 초자연현상은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던 필리핀에서 나타났다. 필리핀의 한 병사가 총독부 문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때 갑자기 소실되었다. 지구 다른 한쪽끝에 있는 멕시코 시리에서 나타났다. 어리둥절해진 그는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멕시코 관원들의 물음에 그는 <필리핀 총독부 문앞에서 보초를 설때 필리핀 총독이 암살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사악한 마귀의 부체라고 단정하고 감옥에 넣었다. 몇주일이 지난후 필리핀에서 온 큰배 한척이 멕시코 시리시에 도착했다. 멕시코 관원들은 그 보초병을 이 배앞으로 데려오자 배위에 있던 필리핀 관원들은 대뜸 그를 알아 보았고 그가 한 말이 옳았다는 것을 실증했다.

멕시코 관원들은 그제서야 그를 석방하여 필리핀으로 돌려보냈다.



## 법륜대법은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다

나의 이름은 장덕이며 올해 63 세이며 내몽골 톨론토현에서 살고 있어요. 2005년 12월 북경의 무장경찰총부병원에 가 나의 병을 진찰해보았어요. 병원 의사들은 나의 아들과 딸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식도암이요. 수술하지 않으면 4,5 개월밖에 살지 못하나 수술하면 1 년내지 2 년을 살수 있소.>라고 말했다. 그후 나는 집에 돌아가 시험삼아 법륜공을 련마해보려고 수술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법륜공학원을 청하여 법륜공이야기를 들었고 련공동작을 배웠다. 련공후 나의 신체는 매우 좋아졌다. 2006년 9월 3일에 북경무장경찰총부병원에 가 재차 검진한 결과 모든것이 정상이었다. 주치의사는 의아해서 <무슨령담묘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빨리 낫았는가?>고물었다.

나는 법륜공을 련마했을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소. 법륜대법이야말로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어요.>라고 대답했다.

